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영원한 오빠' 영화로 만나다

남진은 '오빠'라는 호칭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 '오빠 부대'의 원조였다. 내일이면 만 80살이지만 남진은 여전히 오빠로 불린다.

아마도 세월이 흘러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빠'로 불릴 듯하다. '한 번 오빠는 영원한 오빠'인 것은 남진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일 터다.

목포 출신 가수 남진을 모티브로 한 다큐 영화 '오빠, 남진' (감독 정인성)의 시사회가 지난 23일 서울 광진구 한 영화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작품 정식 개봉은 오는 9월 4일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그의 노래인생을 책으로 엮은 '오빠, 남진' (상상출판)이 발간된 바 있다. '원조 오빠에서 영원한 오빠로'라는 수사가 말해주듯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가수 남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번 시사회에 참석한 남진은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 시절 팬들이었던 10대들은 어느덧 60대, 70대, 80대가 됐다"며 "저를 아껴주고 성원해준 팬들에게 '괜찮은 모습으로 사라져가는 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다큐멘터리는 내일이면 데뷔 만 60주년을 맞는 남진의 인생을 중심으로 한국 대중음악사 100년의 시간을 돌아본다. 지난 65년 데뷔해 두 세대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전성기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

다큐멘터리 '오빠, 남진' 서울서 시사회 성료...9월 4일 개봉
"가수로서의 인생 잘 마무리 하는 것이 팬들에 대한 사랑 보답"

는 비결은 아마도 '권'으로 대변되는 전라도 정서와 소탈함, 성실성에서 비롯됐을 것 같다.

히트곡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가 운데 '가슴 아프게', '남과 함께', '너와 나', '미워도 다시 한번', '동지', '빈 잔' 등 많은 곡들이 세대를 초월해 사랑을 받는다.

남진은 "팬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6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했고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다"며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수로서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다큐는 남진의 히트곡을 들려주는 한편 그의 인생 여정을 차례차례 보여준다. 중간중간 인터뷰를 통해 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지인에게 말하듯 친근하게 들려준다.

그의 가수 인생에는 한국 대중음악사 100년사가 녹아 있다. '우리 대중음악의 고전'이라 평가받는 것은 대중음악의 100년사와 격동의 현대사가 교차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편으로 대중음악이라는 장르를 넘어 남진은 소외의 대명사였던 호남의 자부심이기도 했다. 군사독재 시절 압박과 설움을 당해야했던 지역민들에게 남진은 그 자체로 위로를 주는 대상이었



영화 '오빠, 남진'. <스튜디오 디에이제이 제작>

다. 정치에서는 'DJ' (김대중 전 대통령)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면, 대중문화예술계에서는 남진이 스타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그의 연에게 데뷔는 스무살이던 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첫 음반 '플레이보이'로 데뷔한 그는 닐 세타카, 엘비스 프레슬리, 폴 앤가 등 당대 팝스타를 벤치마킹한 장법으로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호남형의 외모에 굽직한 저음, 좌중을 사로잡는 매너는 '오빠, 남진'의 전성시대가 쉽게 저



지난 23일 열린 시사회에서 가수 남진(오른쪽)과 정인성 감독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OSEN 제공>

물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다큐에는 남진이 제작진으로부터 '남진의 마지막 무대는 언제인가'라고 질문을 받는 장면이 있다. 이에 그는 "오늘은 아니다. 그건 확실하다"고 말하며 "오빠는 아직 살아 있다"를 부른다.

낙천적인 성격에 구수한 입담은 '정 많은' 전라도 남자를 연상케 한다. 영화에는 자니 리를 비롯해 설운도, 백일섭, 김창숙 등 함께 활동했던 연예인들 외에도 장윤정, 장민호, 송가인 등 후배

가수의 인터뷰도 담겨 있다.

설운도는 "무명의 나를 살린 은인이라 불모텔", 장윤정은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선구자", 박현빈은 "남자가 봐도 정말 멋진 상남자"라고 앞서 발간된 책에서 평한 바 있다.

영화는 '남진'이라는 렌즈를 통해 한국 대중음악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편, 대중음악이라는 역사를 매개로 가수 남진의 60년 노래 인생을 보여준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라·가계 빛 첫 '3000조원' 돌파...2분기에만 44조원 ↑

세수평가에 국제 발행 늘고, 영끌·빚투로 가계부채 늘어
국가채무·가계신용 각각 팬데믹 이후 최대 폭 증가세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최근 큰 폭으로 늘면서 올해 2분기 말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 경기 부진, 감세 기조로 '세수 평가'가 계속되면서 국제 발행이 늘었고, 최근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 부채마저 급증한 결과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명목 GDP(2401조원)의 127%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국제(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걸쳐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나라·가계 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 분기(2998조원)보다 44조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증가 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나라·가계 빚은 작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 급증하며 보폭을 키우기 시작했다. 올해 2분기에는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모두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평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늘었고, 이는 결국 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 뚜렷한 세수 기반 확충 없이 이어지는 감세 정책도 재정 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가 채무는 경제 규모와 비교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가계신용은 1896조2000억원으로 2분기에만 13조8000억원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관련 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실제로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었다. 특히 가계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가계 빚의 가파른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맞물려 정부·민간 소비를 옥죄는 모양새다.

불어난 빚 탓에 정부 총지출과 금리 인하가 제약을 받는 등 커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재정·통화정책의 재량이 줄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나라·가계 빚 증가세는 앞으로 더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이스라엘, 레바논 선제타격...헤즈볼라, 보복 선포

이스라엘군 대변인 "헤즈볼라 공격조짐 인지" 주장...민간인 대피령

이스라엘군이 25일(현지시간) 레바논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의 공격 조짐을 포착했다며 선제 대응 차원에서 전투기를 띄워 레바논 내 표적을 공습했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온 직후 헤즈볼라는 지난달 고위 지휘관이 이스라엘 폭격으로 사망한 데 대한 보복을 개시했다고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에 나섰다.

로이터,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다니엘 하加里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서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자기방어 행위를 레바논 내 테러 표적들을 타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헤즈볼라가 곧 로켓과 미사일, 드론을 이스라엘로 발사할 것"이라며 "헤즈볼라 작전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즉각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은 또 레바논 남부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아랍어 메시지에서 "우리는 헤즈볼라의 위협을 공격해 제거하고 있다.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떠나라"고 말했다.

하加里 소장의 경고가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북부에서 공습경보가 울렸고, 이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대대적인 보복공격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헤즈볼라는 지난달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고위 지휘관 푸아드 슈크리가 이스라엘 폭격으로 사망한 데 대한 보복으로 다수의 드론과 로켓을 동원해 이스라엘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는 "아이언돔(이스라엘 방공망) 플랫폼과 병행해 비탄한 추후 공개할 특수군사 목표물을 겨냥했다"며 보복공격을 완료하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헤즈볼라는 곧이어 이스라엘 북부로 로켓 320발 이상을 발사하고 드론을 날려 보내 군사기지 11곳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대비 태세에 나섰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6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베냐민 내타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긴급 안보내각 회의를 소집했다.

이스라엘군은 또한 현재는 헤즈볼라를 향한 공격이 대부분 레바논 남부를 겨냥하고 있지만 위협요인이 있다면 레바논 어디든 타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9. 2(월) 오후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투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8. 26(월) 오후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직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2년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